

레이저 프린터 시장, 컬러/프린터 기반 복합기로 화려한 도약 중

레이저 프린터 시장의 동향 및 전망

레이저 프린터 시장이 화려한 변신, 도약을 시도 중이다. 지난해부터 100만원 이하의 보급형 컬러 레이저 제품의 잇따른 출시와 기존의 기업 중심 판매에서 공공, 교육 분야로까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삼성전자, 한국HP, 엡손, 신도리코, 후지제록스, 캐논 등 프린터/복사기를 기반으로 한 관련 업체들의 발 빠른 변신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다중작업과 네트워크 기능, 프린트·스캔·복사·팩스 전송·사진출력·네트워크 전송 기능 등을 두루 갖춘 프린터 기반 복합기도 가세해 레이저 프린터 시장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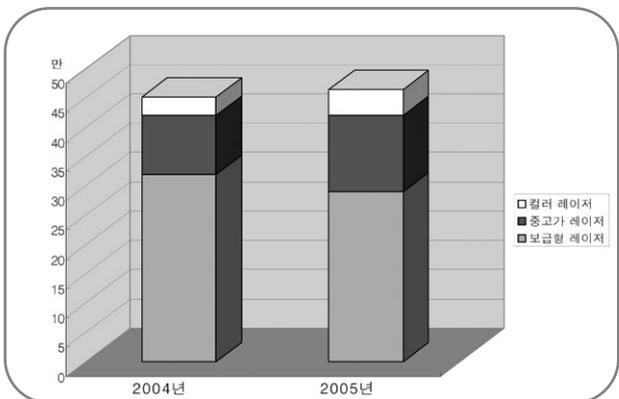
취재/윤미선 기자

프린터/복사기 판매 기반 업체들의 발 빠른 변신과 치열한 경쟁 예상

2005년, 흑백/컬러/복합기를 합친 레이저 프린터 시장은 약 45만대 판매를 보인 지난해 보다 만 대 늘어난 46만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마감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레이저 프린터 시장의 대부분 판매는 흑백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기업에서 공공, 교육 분야로까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보급형 컬러/프린터 기반 복합기로서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2005년 현재, 30ppm 이상의 고성능 흑백 레이저 프린터의 판매 비율이 지난해의 2% 수준에서 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프린터 기반 복합기의 성장세는 지난해 프린터 수량 대비 20%에서 30%까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흑백레이저 프린터 시장에 발맞춰 그 동안 고가의 제품으로만 인식되었던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잇따른 보급형 제품 출시는 컬러로의 화려한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 레이저 프린터 시장 규모

사무기기 산업의 동향 및 전망

또한 DEEL코리아의 프린터 시장 국내 본격 진입과 그 동안 신도리코와 삼보 컴퓨터 등과 협력 관계에 있던 세계시장 점유율 2위의 프린터 업체인 렉스마크의 국내 자체 판매망 구축과 진출, 또한 삼성전자와 한국HP, 신도리코, 후지제록스 등 프린팅/복사기를 기반으로 한 관련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프린터 시장의 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레이저 프린터 시장의 소비심리와 트렌드

레이저 프린터 시장의 성장은 속도와 기능, 컬러 출력 등 보다 편리한 제품을 원하는 기존 구매층과 저렴한 유지비를 원하는 잉크젯 사용자들의 대체구매 층의 두가지로 크게 나뉘 볼 수 있다.

레이저 프린터의 일반적인 교체시기는 관공서의 경우 4년, 일반 기업은 2~3년을 주기로 잡고 있는데 이는 장비의 노후 정도 여부를 떠나 업무효율 상승과 고기능성 제품으로 편리한 사무환경 구축을 선호하는 경향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속도 및 해상도와 더불어 최근에는 사무환경에 맞는 다양한 색상과 크기,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졌으며 디지털 복합기와 복사기, 프린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레이저프린터 시장과 디지털복합기 시장의 경우 관련 업체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두 제품은 복사/프린팅이라는 다른 용도의 제품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3 디지털 복합기 시장의 경우, 기존의 아날로그 복사기를 대체하여 성장 중이지만 향후 후에는 A4 레이저 복합기 시장으로 서서히 대체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과거 레이저프린터 구매 주요인은 Hardware의 가격이었지만 요즘 소비 트렌드는 구체적인 소모품/소모성 부품

의 비용을 고려한 제품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제품 출시 시기에 따라 동일회사의 제품이라도 유지, 관리 비용 면의 지속적인 비용 감소 욕구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말부터 각 기업들은 효율 증대를 위한 사무환경 솔루션 구축과 홍보,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무환경 솔루션화 급진전

사무기기와 PC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기업의 업무환경도 점차 변하고 있다. 각 기업에 적합한 사무기기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이른바 '맞춤 사무환경 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CLP-510N(삼성 컬러레이저)



▶LaserJet 3380(HP-흑백 레이저 복합기)

예를 들어 IT기기 사무환경(PC, 프린터, 모니터 등)전반을 최적화 된 장비로 셋팅하여 판매하는 종합 사무환경 솔루션 제공을 위한 관련 업계들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2004년 말부터 사무환경 효율성 증대를 위한 솔루션이 기업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네트워크상의 장비 관리를 위한 도구는 기본적인 솔루션으로 변화되고 있다. 사내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한번의 클릭으로 네트워크의 장비들의 설치와 삭제를 끝낼 수 있는 설치 관리 도구들이 관리자의 불필요한 업무 손실을 최소화 하고 프린팅 비밀 인쇄, 전자문서 관리, 보안 기능 등 다양한 기능 등의 탑재가 새로운 추세이며, 더 나아가 향 후에는 디지털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국 지사에서 사무기기들을 간편하게 통제, 관리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 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최근 사무기기 전문회사에서 최적화된 사무 환경을 맞춤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오피스 컨설팅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신도리코의 행보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발맞춰, 프린터 업계의 환경경영 노력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환경보전에 대한 요구에 따라 프린터 업계의 환경경영은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삼성전자의 '녹색경영', 신도리코의 'Greenwave' 등 친환경 경영의 노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7월부터 실시되는 친환경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관공서에 환경표지(환경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프린터 제조사 중에는 삼성전자, 신도리코, 후지제록스, 롯데캐논 등이 환경표지를 부여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프린터 품목은 2006년부터 실시되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제품으로서 제조, 판매자가 일정량의 폐프린터를 회수하여 재활용을 위한 관련업체들의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리코에서는 제조사의 폐카트리지를 회수 프로그램인 SRP(Sindoricho Return Program)을 실시 중이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전국의 대리점, 서비스 센터, 온라인 등을 통한 회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EPR기준에 맞는 재활용을 위해 현재 천안 아산에 대규모 재활용 센터를 건립 중이며 10월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P 3232(신도리코-보안 기능 흑백 레이저)

또한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시행이 예고된 환경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에 따라 국내 프린터 제조사들은 이와 동등하거나 보다 강화된 내부 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레이저프린터 시장의 컬러화와 솔루션화의 새바람 예고

2005년 하반기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시장의 컬러화 바람에 따라 관련업계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이다. 레이저 프린터의 컬러화와 복합기의 새 바람을 타고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일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고속 컬러 디지털 복합기 'CLX-7450'을 포함한 신제품발표회를 열고 중대형 사무기기 시장 진출을 선언했으며 한국 HP도 지난해 저렴한 가격의 '컬러 레이저젯 3550'으로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다. 또한 신도리코는 레이저프린터를 포함한 '디지털 오피스 컨설팅기업'으로 변신을 시도 중이며 렉스마크를 비롯한 후지제록스, 한국 엡손, '오키' 카메라 브랜드로 잘 알려진 '코니카 미놀타' 등도 국내에서 공격적인 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 차원에서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레이저 프린터 시장의 컬러/프린터 기반 복합기로의 진보는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공략과 외국 기업의 국내 브랜드 영업의 두 물살 사이에서 디지털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무환경 솔루션 개발 및 홍보, 판매로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